

밀려드는 특별자금 신청... 현장은 '허덕'

<경영안정지원자금>

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2000억원 투입 담당부서 인력난 수요 못 맞춰... 사전예약제 도입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2000억원에 달하는 경영안정지원금이 투입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폭증하는 신청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공공근로 채용과 온라인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기존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업종별 매출액 이내 범위 내에서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밀려드는 신청으로 인해 담당 부서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24일 기준 제주도가 진행한 융자 지원은 1775건·추천금액 624억원으로, 하루 평균 225건에 달하고 있다. 또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특별보증을 한 경우도 25일 오전 기준 1351건·3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오전에는 상담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심사를 하는 방식인데, 직원이 29명이라 급증하는 신청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메르스나 사드 사태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밀려드는 융자지원 신청을 감당하기 위해 공공근로 6명을 채용하는 한편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근로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부문에 2명, '특별보증(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 부문에 4명이 채용된다. 현장 투입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러 25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사전예약제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한 뒤 상담시간을 배정받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자추천 대행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찾는 방문객이 하루 평균 500여명에 이르는 등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민원인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청절차가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소방서 전담구급대로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차량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 2번째 확진자 나온 서귀포시... 선별진료소 쏠림 현상에 '과부하'

의료원에만 의심증상자 몰려 검사 대기시간 길어져 불편 보건소 진료소 기능강화 요구 이동식 엑스레이 운영 필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를 가능하게 하기 어려운 가운데 흑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기능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데다 의심 증상자들이 도내 7곳의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속속 찾고 있고, 의심 증상자의 검체 채취 건수도 증가하며 도민들의 검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25일 서귀포보건소 등에 따르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는 보건소를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14일내 중국 등 코로나19 유행국가나 대구를 다녀온 이들 중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이는 이들에게 병원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거나 상담을 하고 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며 의심증상자의 검체 채취 건수도 3~4배 늘

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의 2곳 선별진료소에서 23일 34건, 25일 25건의 검체 채취가 이뤄져 확진자 발생 전 하루 7~8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 2번째 확진자가 서귀포의료원병원을 다녀간 이후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로 쏠림 현상이 뚜렷해 방문자의 검사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선별진료소는 업무 과부하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폐렴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동형 엑스레이(X-RAY)를 배치 운용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비를 배정하면서 서귀포보건소는 선별진료소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구입해 이번 주 중 도착할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동형 엑스레이를 운영하려면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필요한데 이들 전문인력 확충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앞으로 운영은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검체 채취 등 검사보다는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마스크는 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들이 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전담반 운영

연락두절시 자치경찰 지원 생활비 확대... 최대 145만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의 운영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와의 연락두절과 무단이탈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치경찰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자치경찰이 현장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행정시별 5명의 비상연락관이 배치된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1대1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의 역량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방법과 대처요령 등의 교육도 진행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보건소를 통한 생활필품 지원도 확대된다. 예산도 3600만원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억원이 추가돼 총 20억3600만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지원 물품은 즉석밥과 생수, 두루마리 화장지, 김, 라면, 계란, 즉석짜개류, 참치통조림, 즉석카레 등이며, 전달은 제주시에서는 제주보건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가 실시한다.

자가격리자와 임원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시스템이 24일부터 연계·개통되면서 현재 1건이 접수됐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이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 예산은 총 2억4600만원(국비 1억2300만원·도비 1억2300만원)이다. 우선 국비를 투입하며 도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지원액은 1인당 45만4900원, 2인 이상 145만7500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한편 25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2명(24일)이 추가돼 총 170명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연기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8일 예정됐던 제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는 제주

시 한림읍 금악리 산70-3번지 일원에서 피톤치드 방출량이 높은 편백나무 등을 위주로 1000여분을 식재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나무심기 행사 계획을 추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철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주시공처·권일동 현대아파트·외도 일우아파트 외]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p>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	---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요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점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싹(부식)이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텐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조천면 대읍리 가정집 설치



- 초기점화 30초내
-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 녹/외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점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풀은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도방공주임바랍니다.**